



# numbers

vol. 290

한국 vs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 신앙 의식 비교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2025 청소년 통계 (인구 추이, 다문화 학생 추이, 흡연·음주율 등)
- ② 한국 국가부채 현황 (OECD 비교)

2025. 6. 10.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최근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을 공감하며, 국내외 청소년들의 신앙 실태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넘버즈에서는 한국 청소년과 다음세대의 신앙 및 생활에 대한 조사를 다수 소개해 왔으나(214호, 229호, 249호 등 참조),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에 대한 조사는 다뤄진 바가 없었다. 이에 뉴욕지역교회협회 의뢰로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 한인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주 한인교회(뉴욕지역) 청소년 조사' 결과를 이번 넘버즈 290호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사는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예배와 교회 생활, 가정의 영향, 삶의 정체성과 목적의식 등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살펴봤으며, 특히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집단이 처한 신앙 환경의 차이 등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번 넘버즈 290호를 통해 미주 교회 청소년과 한국교회 청소년이 처한 신앙 환경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각 지역(나라)에 맞는 다음세대 사역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한인교회(뉴욕지역) 청소년 조사

### 조사개요

| 구분    | 내용  |
|-------|---|
| 조사 대상 | 뉴욕 등 미국 동부지역 한인교회 소속 청소년(만 11~18세)  |
| 조사 방법 | 모바일조사(스노우볼링 방식)<br>- 1단계 : 교회 목회자에게 설문URL 전달<br>- 2단계 : 교회 목회자가 교회 내 청소년들에게 문자를 통해 설문 링크 전달 |
| 표본 규모 | 총 165명 (유효표본)   |
| 표본 추출 | 스노우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   |
|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
| 조사 기간 | 2024년 9월 10일 ~ 2025년 1월 3일 (총 115일간)  |
| 조사 주체 | 뉴욕지역교회협회  |
| 조사 기관 | 목회데이터연구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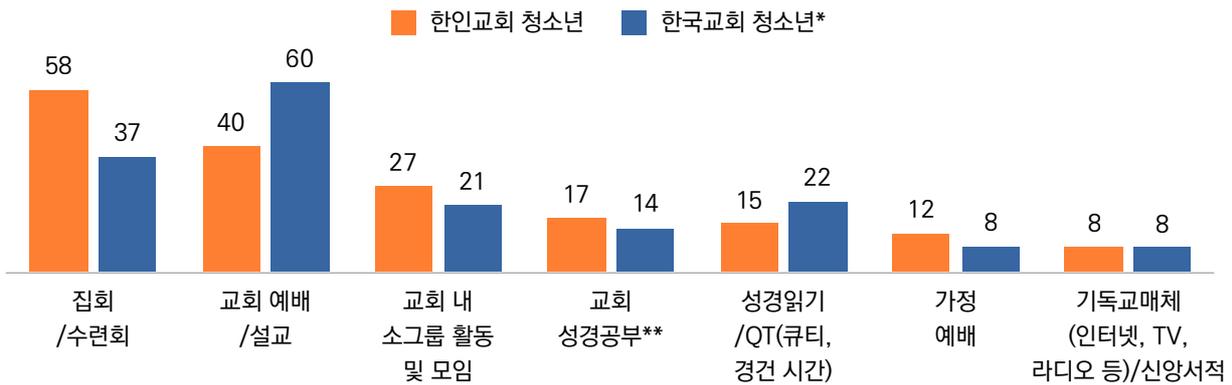
# 01

## [신앙생활]

### 신앙 성장 도움 요인, 한인 청소년 '수련회', 한국 청소년 '예배'

- 뉴욕지역 한인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을 묻은 결과, '집회/수련회'(58%)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은 동일 문항에 대해 '교회 예배/설교'(60%)를 가장 많이 선택해 두 집단 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 한인교회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보다 공동체적 경험(집회/수련회, 소그룹 등)을 통해 신앙에 깊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 요인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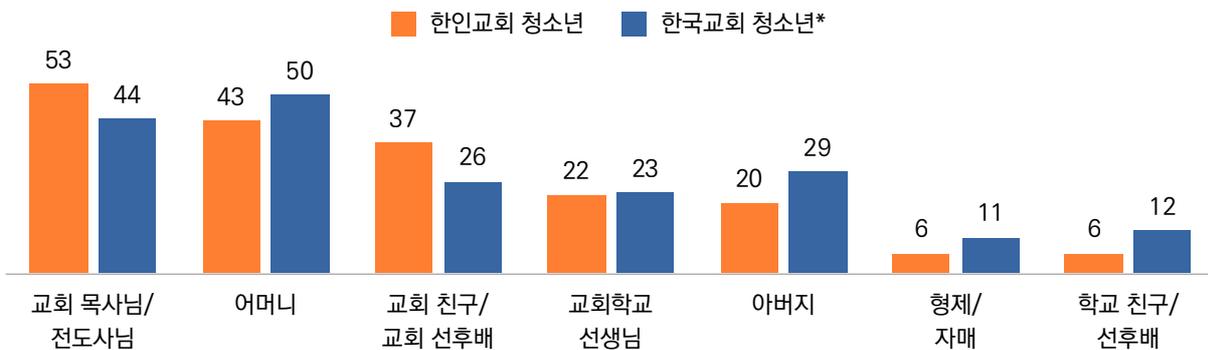
\*출처 : 교회탐구센터,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 2019.11.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19.10.10.~10.19)

\*\*한국 청소년의 보기는 '공과공부'였음

### 신앙생활에 영향 준 사람, 한인 청소년 '목회자', 한국 청소년 '어머니'

-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조사한 결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은 '교회 목사님/전도사님'(53%)이 가장 높았고, 이어 '어머니' 43%, '교회 친구/교회 선후배' 37% 등의 순이었다.
- 반면 한국 청소년은 '어머니'(50%)를 가장 높게 꼽았고, '교회 목사님/전도사님' 44%, '아버지' 29%가 그 뒤를 이었다.
- 눈에 띄는 점은 미국 한인교회 청소년은 한국과 달리 '교회 목사님/전도사님'이 '어머니'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이다.
- 또한 한인교회 청소년은 가족 외 '교회 친구/교회 선후배'(3순위)의 영향이 높게 나타났고, 한국 청소년은 어머니 이외 가족 내 다른 구성원(아버지, 형제/자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이 주목된다.

[그림] 신앙생활에 영향 주는 사람 (1+2순위, 상위 7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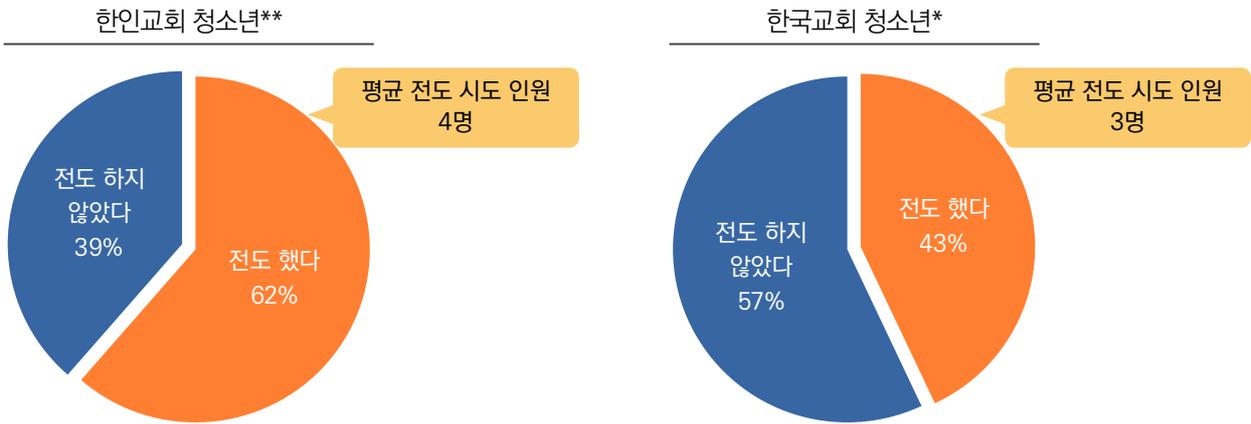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2025.02.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1.)

## 한인교회 청소년의 전도 활동, 한국 청소년보다 적극적!

- 지난 1년간 전도 경험을 묻은 결과, 62%의 한인교회 청소년이 전도를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이 시도한 평균 전도 대상은 4명이었다.
-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의 전도 경험률은 43%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19%p 낮았으며 전도를 시도한 사람 수는 평균 3명으로, 전반적으로 미국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전도에 좀 더 열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지난 1년간 전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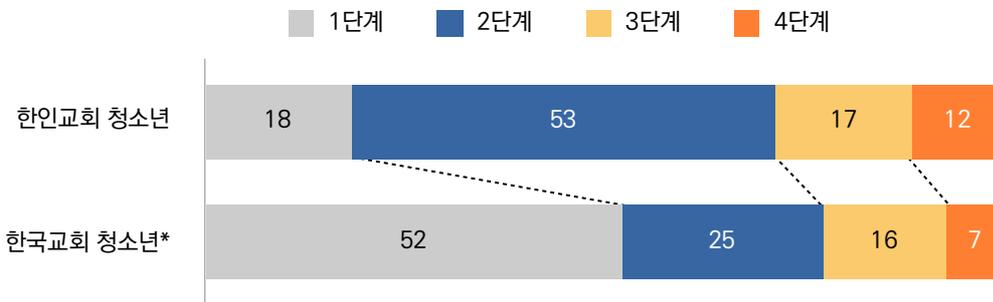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2025.02.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1.)  
 \*\* '전도 했다'는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데려 오지는 못했다' (38%)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려왔다' (24%)를 합한 비율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신앙 성숙도 더 높아!

- 신앙 수준을 1~4단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신앙 수준이 가장 낮은 1단계의 경우 한인교회 청소년은 18%, 한국교회 청소년은 52%로 두 집단간 큰 차이를 보였다.
- 가장 신앙적으로 성숙한 4단계 비율은 한인교회 청소년 12%, 한국 청소년 7%로 차이를 보였으며, 3·4단계를 합친 비율도 한인교회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 각각 29%, 23%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인교회 청소년이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본인의 신앙단계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2025.02.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4.01.05.~01.11.)  
 Note)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 분을 알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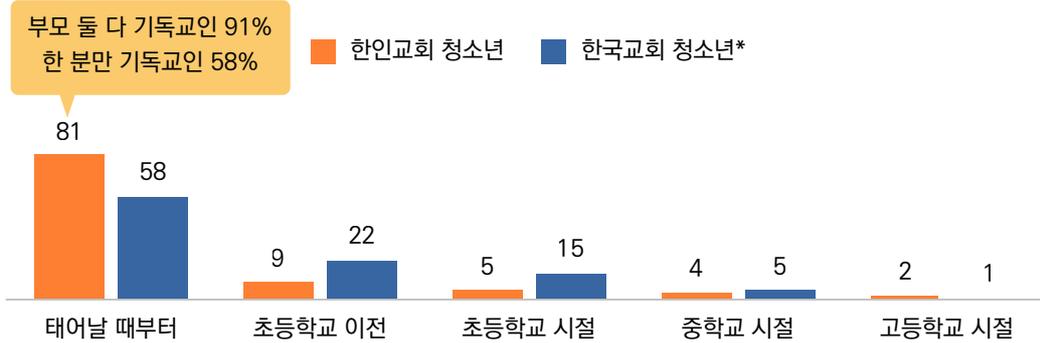
# 02

## [예배/교회생활]

### 한인교회 청소년 모태신앙 81%, 한국 청소년보다 높아!

- 교회 처음 나온 시기를 묻은 결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의 81%가 '태어날 때부터'(모태신앙)라고 응답해, 대부분이 모태신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모두 기독교인'인 경우 모태신앙 비율은 91%, '부모 중 한 명만 기독교인' 경우는 58%였다.
- 한편 한국교회 청소년의 모태신앙 비율은 58%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그림] 처음 교회에 나온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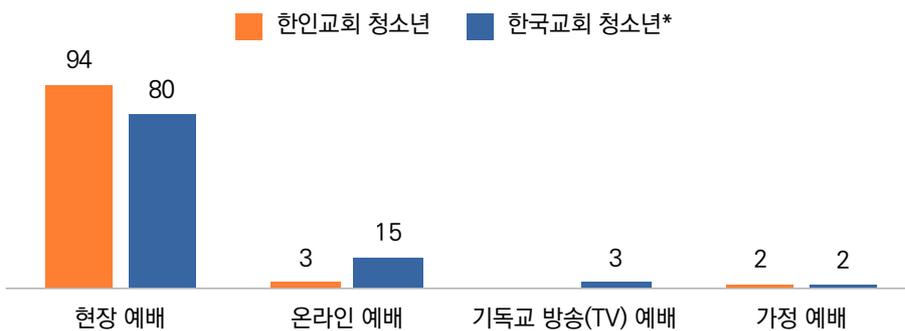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 자신에게 가장 맞는 예배 형태, 한인/한국교회 청소년 모두 '현장예배'!

- 어떠한 예배 형태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과, 한인교회 청소년의 94%가 '현장예배'를 선택해 현장예배 선호가 매우 강했다. '온라인 예배' 등 기타 응답은 각각 3% 이하로 매우 낮았다.
- 한국 청소년의 경우도 '현장예배'가 80%로 가장 높았지만, '온라인 예배' 선택 비율이 15%로 한인교회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대면 예배에 대한 선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림] 자신에게 맞는 예배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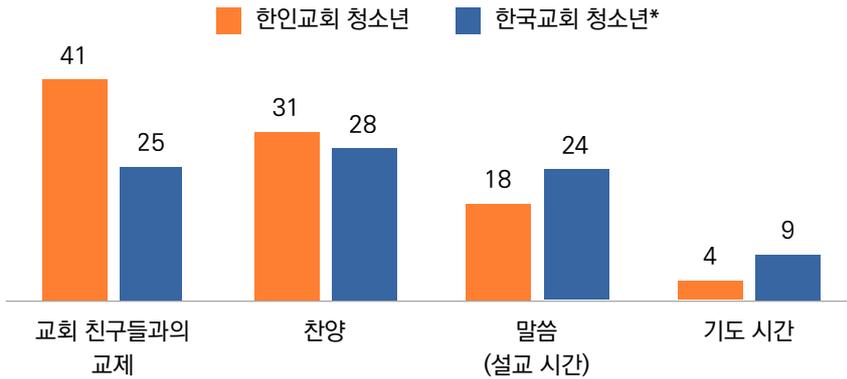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기타는 제외

## YOUTH 부서 예배 만족 요인, 한인교회 청소년은 '친구들', 한국교회 청소년은 '찬양'!

- 한인교회 청소년의 YOUTH 부서 예배에 대한 만족 요인을 살펴보면, 한인교회 청소년은 '교회 친구들과의 교제' 41%를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찬양' 31%, '말씀' 18% 순이었다. '친구들과의 교제'가 예배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은 '찬양'(28%), '교제'(25%), '말씀'(24%)이 비슷한 수준의 만족 요소로 나타나, 예배 요소 전반에 걸쳐 만족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YOUTH 부서 예배 만족 요인 (YOUTH 부서 예배에 만족하는 청소년,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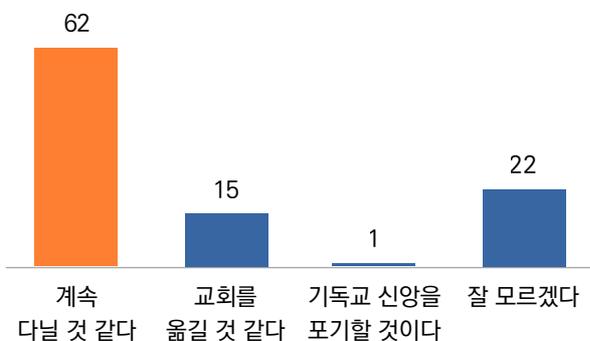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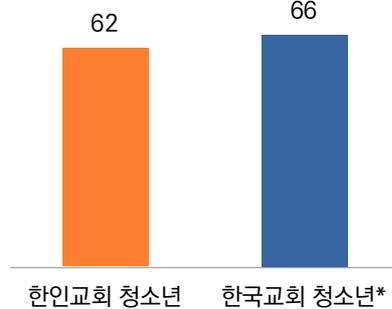
## 한인교회, 한국교회 청소년 모두 3명 중 1명 가량, 현 교회 계속 출석 불투명!

- 향후 지금 다니는 교회에 계속 출석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한인교회 청소년 62%가 '계속 다닐 것 같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교회를 옮길 것 같다' 15%,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 같다' 1%, '잘 모르겠다' 22%로 나타났다.
- 한편 한국교회 청소년의 '계속 출석 의향' 비율은 66%로, 한인교회 청소년(62%)보다는 소폭 높았다.
- 전체적으로 한인교회, 한국교회 청소년 모두 3명 중 1명 가량은 향후 현 교회에 계속 다니는 것에 대해 불확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림] 향후 출석교회 출석 의향 (%)



[그림] 향후 출석교회 '계속 다닐 것 같다' 비율 (한인교회 청소년 vs 한국교회 청소년, %)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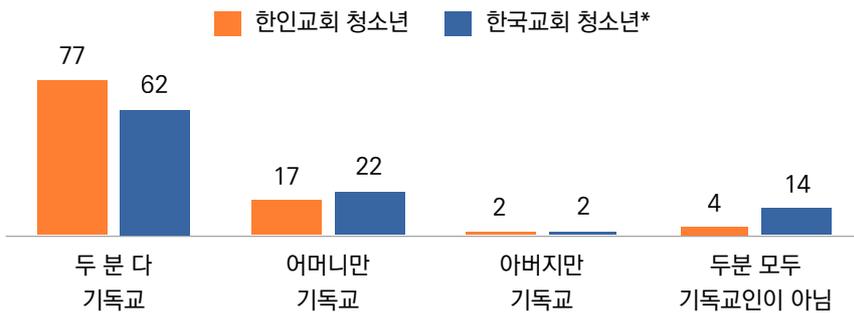
# 03

## [가정신앙과 일상생활]

### 한인교회/한국교회 청소년 60%이상, 양부모 모두 '기독교'!

- 부모님의 종교를 살펴본 결과, 한인교회 청소년의 경우 77%는 '부모 모두 기독교'인 가정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나 아버지 한쪽만 기독교'인 일종의 혼합 가정은 19%, '두 분 비기독교'인 가정은 4%로 조사됐다.
- 한편, 한국 청소년은 '두 분 다 기독교'인 가정은 62%로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15%p 낮았고, 혼합 가정(24%)과 '비기독교 가정'(14%)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 한인교회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더 기독교 중심 가정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부모님 종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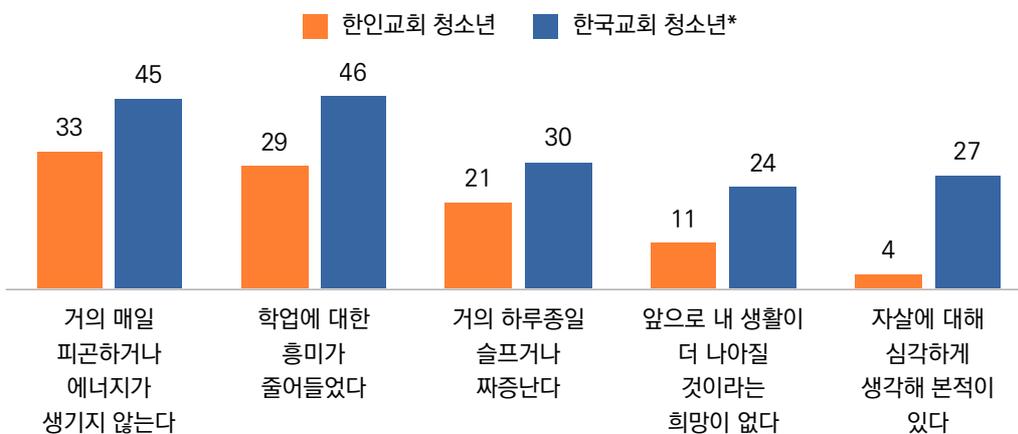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3.09.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3.05.12.~05.24.)

###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 한인교회 청소년이 일상생활 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무기력, 학업 흥미 감소, 슬픔/짜증, 자살 등 전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이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45%), '학업에 대한 흥미가 줄어들었다'(46%)에는 한국 청소년의 부정적 인식이 절반 가까이 달했다.
- 전반적으로 한인교회 청소년이 한국교회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그림] 일상생활할 때 느끼는 감정('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출처 : 안산제일교회, 크리스천 중고생 조사, 2021.05. (교회 출석중인 중고생 500명, 온라인 조사, 2021.04.08.~0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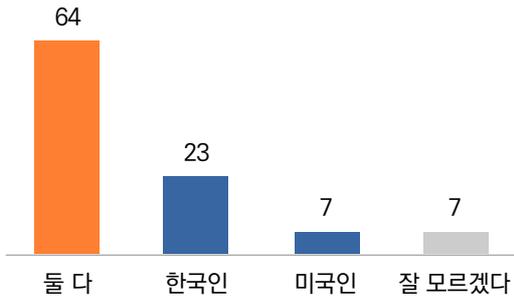
\*\*4점 척도

#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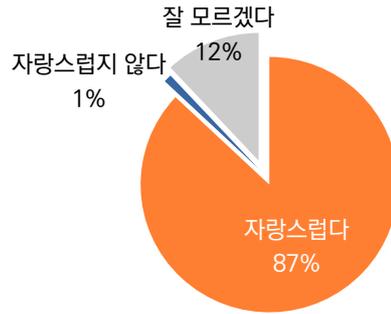
## [기타] 나의 정체성, '한국인 혈통 자랑스럽다' 87%

- 한인교회 청소년에게 본인의 국가·민족적 정체성을 묻은 결과, '(한국인과 미국인)둘 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4%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한국인' 23%, '미국인' 7%, '잘 모르겠다' 7% 순이었다.
- 이번에는 한국인 혈통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자랑스럽다'는 의견이 8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림] 자기 정체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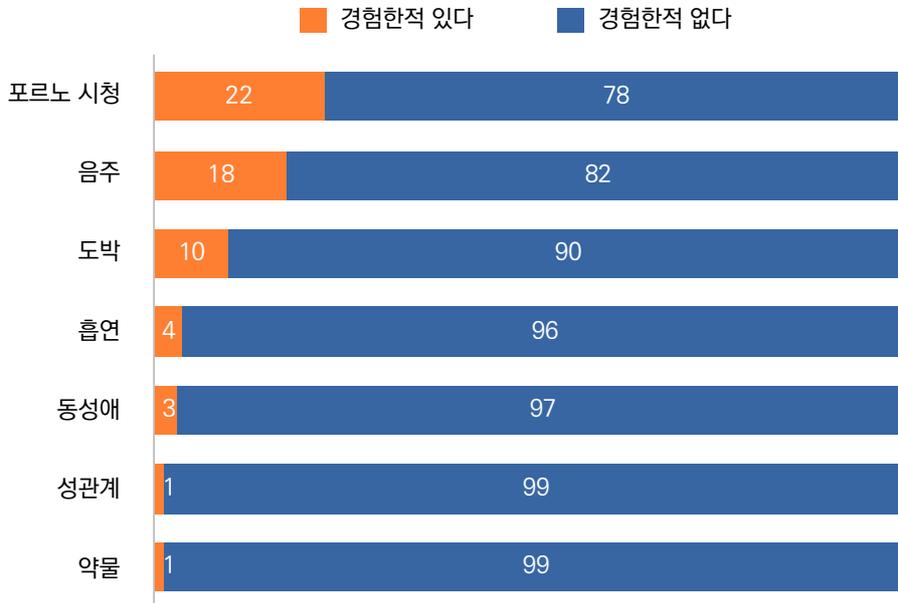
[그림] 한국인 혈통에 대한 생각



## 한인교회 청소년 5명 중 1명, '포르노 시청' 경험!

-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 본 것을 묻은 결과, '포르노 시청'이 22%로 한인교회 청소년 5명 중 1명은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음주' 18%, '도박' 10%, '흡연' 4% 등의 순이었다.

[그림] 경험해 본 것 (%)



## 이번호 요약

### 1. 신앙 성장 도움 요인, 한인 청소년 '수련회', 한국 청소년 '예배'!

- 한인교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신앙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요인을 묻은 결과, '집회/수련회'(58%)를 가장 높게 꼽았다. 반면, 한국교회 청소년은 '교회 예배/설교'(60%)를 가장 많이 선택해 두 집단 간 차이를 엿볼 수 있었다.

### 2. 신앙생활에 영향 준 사람, 한인 청소년 '목회자', 한국 청소년 '어머니'!

-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질문한 결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은 '교회 목사님/전도사님'(53%), 한국교회 청소년은 '어머니'(50%)를 각각 1순위로 꼽아 이 역시 두 그룹 간 차이를 보였다.

### 3. 한인교회 청소년,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

- 한인교회 청소년이 일상생활 시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한국교회 청소년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무기력, 슬픔/짜증 등 전 항목에서 한국 청소년의 동의율(매우+약간 그렇다)이 한인교회 청소년보다 높았다. 전반적으로 한인교회 청소년이 한국 청소년보다 정신적으로 더 건강함을 보여준다.

##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 아시아계 미국인 청소년 사역: 대니 권 목사 인터뷰 (SOLA NETWORK)

##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 목회 적용점

한국교회 청소년과 미주 한인교회 청소년의 신앙 의식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은 정서적 안정감, 신앙 영향 요인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인교회 청소년은 '목회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집회·수련회 등 공동체 경험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목회자와의 관계, 또래 교제, 현장 중심의 신앙 체험이 다음세대 신앙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한국교회도 예배 중심을 넘어서 청소년이 또래 및 리더와 깊이 교류할 수 있는 캠프, 소그룹 등 공동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목회자는 단지 설교자나 관리자에 머무르지 않고, 청소년의 일상과 감정, 정체성의 고민에 공감하고 동행하는 멘토가 되어야 한다. 다음세대가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이유로 그들의 고민을 시에 맡길 순 없다. 예배와 교육뿐 아니라, 진로, 감정, 관계 등 삶의 문제를 나눌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신앙이 삶의 방향성과 연결되도록 돕는 통합적 돌봄이 요구된다.

또한 한인교회 청소년에 비해 크게 높았던 한국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성이 주목되는데, 입시와 성적요인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기력, 학업 흥미 감소, 자살에 대한 고민 등 힘들어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서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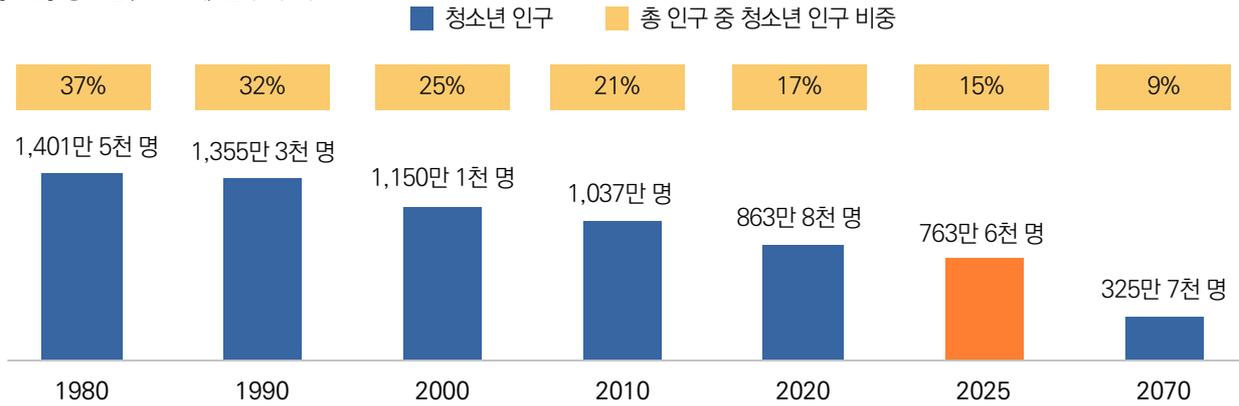
1. 2025 청소년 통계 (인구 추이, 다문화 학생 추이, 흡연·음주율 등)
2. 한국 국가부채 현황 (OECD 비교)



## [2025 청소년 통계(인구 추이, 다문화 학생 추이, 흡연·음주율 등)] 전체 인구 중 우리나라 청소년 비중 15%로 지속적 감소세

- 청소년 통계는 여성가족부에서 2002년 최초 작성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이 중 주요 통계 일부를 살펴본다.
- 청소년 인구(9~24세)는 2025년 기준 763만 6천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980년 1,400만 명에 달했던 청소년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0년(863만 8천 명)에는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향후 50년 뒤인 2070년에는 총인구의 9% 수준인 325만 7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 청소년(9~24세)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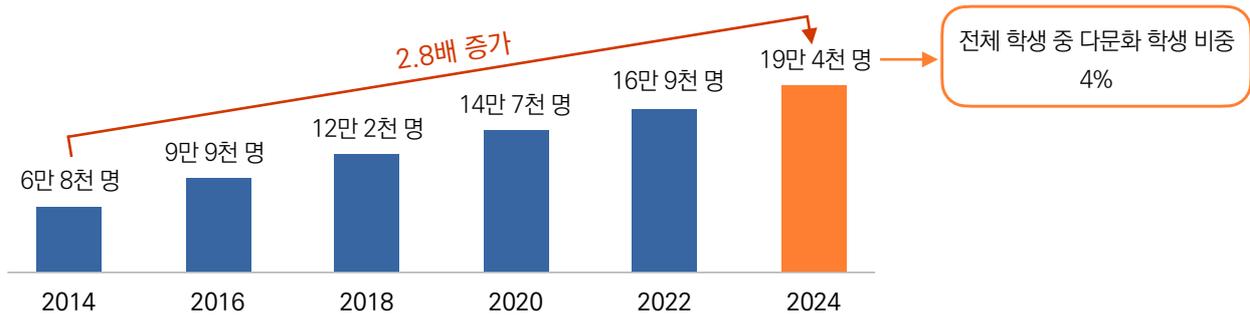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 통계, 2025.05.27.

## 10년 전보다 다문화 학생 수, 3배 가까이 증가

- 한국의 다문화 학생은 2024년 기준 19만 4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4% 수준이다.
- 앞서 청소년 인구 수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반면 다문화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 6만 8천 명에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림] 다문화 학생 수 추이 (초·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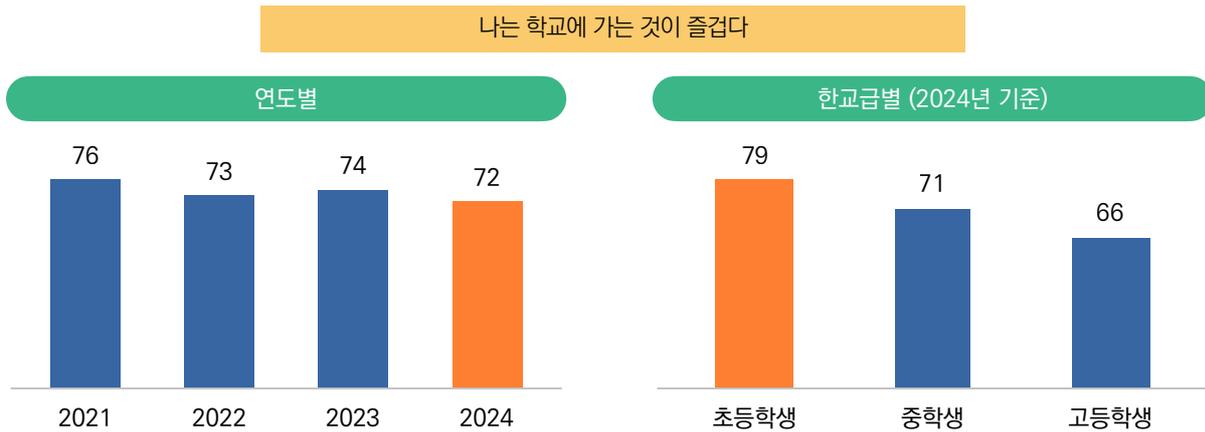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 통계, 2025.05.27.

## 초등학생→고등학생으로 갈수록 학교생활 즐거움은 감소!

- 학교생활 만족도 질문으로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에 대한 동의율을 확인한 결과, 2024년 기준 초(4~6학년)·중·고등학생의 72%가 '그렇다'고 응답해 10명 중 7명 이상이 학교생활에 만족도(즐거움)를 느끼고 있었다.
- 다만 '학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1년 76%에서 2024년 72%로 소폭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학교급별로도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갈수록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초등학생 79%→ 중학생 71%→ 고등학생 66%)

[그림] 학교생활 만족도(초(4~6학년)·중·고등학생, '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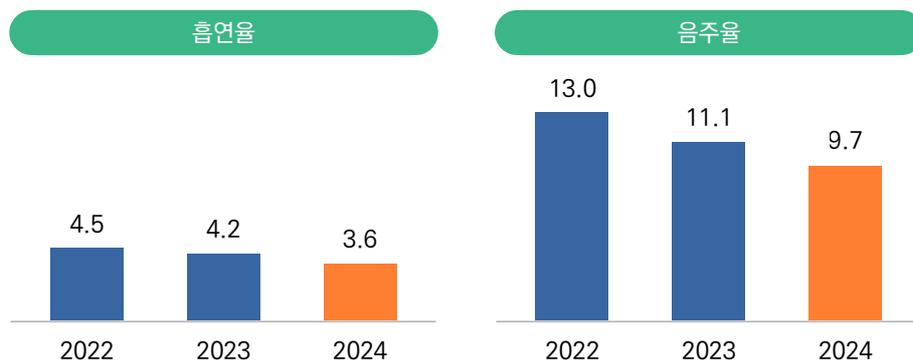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 통계, 2025.05.27.

\*4점 척도

## 중·고생의 흡연·음주율, 3년 연속 감소세!

-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30일 이내 담배, 술 경험이 있는지 묻은 결과, 2024년 기준 흡연율 3.6%, 음주율은 9.7%로 나타났으며, 흡연율과 음주율 모두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흡연 및 음주 경험률(중·고등학생,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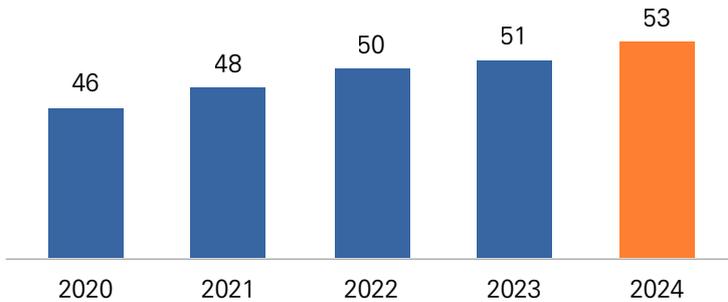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5 청소년 통계, 2025.05.27.



## [한국 국가부채 현황(OECD 비교)] 우리나라 국가부채, GDP의 절반 수준!

- 우리나라의 빚(부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IMF의 재정모니터 보고서(2025.04)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6%에서 서서히 증가해 2023년 50%를 돌파했고, 2024년 53%로 조사됐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 정도 된다.

[그림] 일반정부부채(국가부채) 비율 추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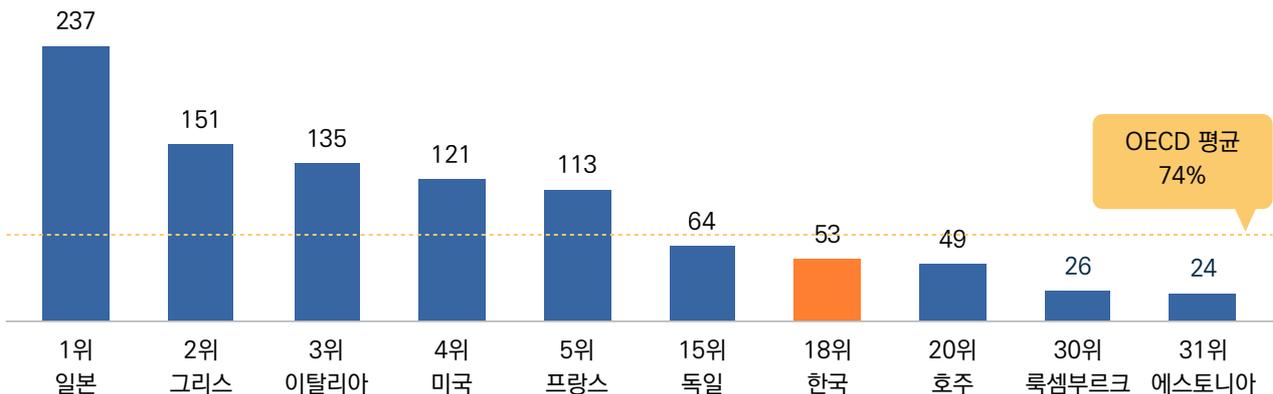
※출처 : IMF(국제통화기금), Fiscal Policy under Uncertain(불확실성 속의 재정 정책\_재정모니터), 2025.0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5/04/23/fiscal-monitor-April-2025>)

\*일반정부부채(국가부채)= 국가채무+비영리공공기관 부채

## 국가부채 비율, OECD 31개국 중 한국 18위로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 OECD 31개국 중 주요국의 국가부채 비율(각국 GDP대비)을 살펴본 결과, 2024년 기준 OECD 평균은 74%였으며, 일본이 237%로 1위를 기록했다.
- 미국(121%), 프랑스(113%)도 각각 4, 5위로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상위권에 속했다. 한편 한국(18위)은 53%로 OECD 평균을 밑돌며 31개국 중 중하위권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그림] OECD 주요국 국가부채 비율\* (OECD 31개국 중 주요국, 2024년 기준, %)



※출처 : IMF(국제통화기금), Fiscal Policy under Uncertain(불확실성 속의 재정 정책\_재정모니터), 2025.04.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5/04/23/fiscal-monitor-April-2025>)

\*내림차순(부채 비율 높은 순)으로 순위매김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24 \(2025년 6월 1주\)](#)

- 제21대 대통령선거 D-6, D-2 후보 지지도, D+2 사후 조사

[\[21대 대선 특집\] 투표율 분석](#)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6.6.

[李대통령 지지층 47% "여당 무조건 대통령 지원은 반대"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중앙일보\_2025.6.10.

[李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극복" 47%... "계엄처벌" 16% \[중앙일보·국가미래전략원 조사\]](#)

중앙일보\_2025.6.10.

## 사회 일반

[자취 감추는 '남아선호'... 한국 등 선진국일수록 뚜렷](#)

국민일보\_2025.6.8.

[\[팩트체크\] BTS 영향?...한국어 열풍 팩트는](#)

연합뉴스\_2025.6.9.

[\[팩트체크\] '연예인=고소득자'는 편견...대중음악인의 현실은](#)

연합뉴스\_2025.6.6.

[\[팩트체크\] 한국만 정년 60세?...주요국과 비교해보니](#)

연합뉴스\_2025.6.4.

[국민건강 위협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심각...마약류 급증](#)

연합뉴스\_2025.6.9.

[한국인 1년간 패션에 83조원 소비... "50대 비중이 최고"](#)

연합뉴스\_2025.6.4.

['외국인이 집주인' 임대차계약도 서울·강남3구 집중](#)

연합뉴스\_2025.6.8.

[연령 낮을수록 다문화 수용 ↑ ...10명 중 8명 "이주민, 인력난 해소 도움"](#)

중앙일보\_2025.6.5.

[성인 음료 섭취량 1위는 '아메리카노'...10대는 탄산음료](#)

연합뉴스\_2025.6.9.

["난 왜 친구가 별로 없지?" 문득 찾아온 외로움에 불안하다면\[최고야의 심심\(心深\)토크\]](#)

동아일보\_2025.6.8.

[연간 수백만원... 모두가 불편한 축의금, 이젠 사회적 논의할 때](#)

조선일보\_2025.6.10.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경제 · 기업

[육아휴직도 '빈익빈 부익부'?...男육아휴직자 57% '대기업' 재직](#)

연합뉴스\_2025.6.8.

["한국 반도체 기술 세계 5위...AI 9위, 바이오는 10위"](#)

동아일보\_2025.6.10.

[미래 불안한 2030가구... 연초 성과급, 소비에 안썼다](#)

동아일보\_2025.6.4.

["더러운 회사, 내가 때려친다"...중소기업 떠난 사람들, 다시 중소기업에 갔다](#)

매일경제\_2025.6.5.

["직장 내 성희롱 감소세...공공기관·온라인 피해 경험 증가"](#)

연합뉴스\_2025.6.9.

[온열질환 산재 절반 소규모 사업장서 발생...올해 벌써 3명 사망](#)

연합뉴스\_2025.6.8.

[60대 고용률, 20대 따라잡았다](#)

중앙일보\_2025.6.1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라면 어떡하실건가요?"...4명 중 3명은 이렇게 답했다](#)

매일경제\_2025.6.9.

## 국제 · 환경

["해외여행 대신 집 근처로"...미국도 한국도 불황형 휴가](#)

중앙일보\_2025.6.5.

["내 장례식에 와줘 고마워" AI로 재현한 고인... 치유인가 모독인가](#)

조선일보\_2025.6.4.

## 건강

[청소년 3명 중 1명이 알레르기 질환... '7시간' 수면과 밀접 \[건강한겨레\]](#)

한겨레\_2025.6.4.

[하루 2000보만 걸어도 효과는 있다...그럼 최적의 걸음 수는?](#)

한겨레\_2025.6.9.

## 기독교 · 종교

["미국장로교, 25년 만에 성도수 150만명 감소... 2025년이면 100만 명 아래로"](#)

기독교연합신문\_2025.6.3.

# 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웍,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 추천)

02  
최적화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전문성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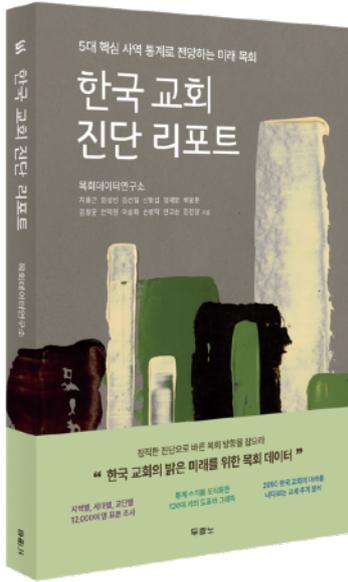


체계성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쿼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                  |                    |               |                |                    |
|------------------|--------------------|---------------|----------------|--------------------|
| <b>Upward</b>    | <b>Forward</b>     | <b>Inward</b> | <b>Outward</b> | <b>Onward</b>      |
| 건강한 교회의 맥박<br>예배 |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br>교육 | 그리스도의 몸<br>친교 | 예수의 섬김<br>봉사   |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br>선교 |